

## 사우회원은 문화방송의 역사와 상징.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터

2017년 6월로 상반기가 끝나고 7월부터 하반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이연현 사우회 회장으로부터 상, 하반기 사우회 운영에 대한 소회와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대담: 편집장)



### 1. 상반기 운영 소회를 포괄적으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사우회의 가장 큰 덕목은 '친목'입니다. MBC에서 30여 년 내외의 직장 생활을 마치고 나왔을 때 갑작스레 밀려오는 허전함을 누군들 맛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말 그대로 '청춘을 불사르고' '혼신을 다해' 근무하다가 어느 날 정년을 맞이하면 누구나 한동안은 상실감을 느끼는 게 당연합니다.

이럴 때 사우회는 심정적 언덕이 되고, 과거의 선배·동료·후배들과의 만남의 장이 됩니다. 직장 추억을 공유하는 데서 화제가 만발할 수 있으며,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한 관심이나 정보를 나눌 수 있다는 것 또한 좋은 위안이 될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사우회 친목과 소통 기초를 다양하게 운용할 생각을 해왔습니다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여건 내에서 최선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자 결론 아니겠습니까?

### 2. 하반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상반기 각종 행사와 동호회 활동 지원으로 사무처는 나름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제가 취임하면서 예산 축소를 위해 사무처 상근자 한 명을 줄인 탓에 아무래도 상임 부회장과 사무처장의 업무하중이 예전과는 달리 더 무거워 보여 미안한 마음입니다. 거기다 회원들의 불만족도를 조금이라도 느끼게 될 경우, 사무처 상근자 세 사람의 의욕상실감이 눈에 띄게 나타나서 그 또한 편한 마음은 아닙니다.

하반기라고 해서 상반기보다 더 여유로운 조건이 있을 수는 없지만 성심 성의껏 최선을 다하도록 사무처 직원 모두가 애쓰겠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회원들이 사우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회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해야 하는 지혜를 발휘할 생각입니다.

### 3. 상반기 중 행사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어 일부 회원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사우회 재정 궁핍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회원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도록 강조해 왔습니다. 사우회 재정의 요체인 본사 보험 가입 대행 수수료가 매년 2천만 원 단위 수준으로 감소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회원 증가에 따라 증가할 경조 비용 부담을 조정할 수밖에

에 없었습니다. 동호회 활동 지원 역시 예전에 비해 타이트하게 운용해야 했습니다. MBC 본사도 근년 지상파 방송이 겪고 있는 각종 형편의 하향 곡선에 시달리고 있어서 본사 직접 지원 행사인 5월의 양주 문화동산 단합대회라든가 연말 송년회 지원이 전과 같지 못하는 등 회원들의 아쉬움이 불가피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무처로서는 예산 집행 상 적자 예상폭을 좁히면서도 종전의 회원 만족도 수준을 크게 떨어뜨리지 않는 쪽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사우회원님들의 이해와 성원을 바랍니다.

### 4. 사우회 운영에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인가요?

8월이면 회장 3년 임기의 절반이 지납니다. 임기 중 회원들의 다양한 동호·취미 활동을 개발하겠다는 생각을 품었었으나 책임있는 입장에서 보니 현실 구현이 불가능하거나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 할 수 있겠네요. 물론 나 자신의 역부족을 일차적으로 자책합니다. 머릿속의 궁리나 상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현실화하는 여건 조성을 이뤄내지 못하는 점을 자성으로 그치는 것도 제 애로사항입니다.

### 5. 회원들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사우회 회원 여러분은 곧 문화방

송의 역사이며 상징입니다. MBC의 오늘을 이끌어 온 역군이었고 경험과 지혜의 인재들이었습니다. 단순히 문화방송 퇴직 사우로 하릴 없이 늘어가는 퇴역적 모습의 선배가 아닙니다. 또한 사우회는 이러한 MBC맨들의 프라이드를 가진 분들이 모인 친목회입니다. 지금 방송 전문 영역이 전과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상파·케이블·위성시대의 콘텐츠 수용과 경쟁시대에 전혀 다른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훌루, 아마존 비디오 등 스트리밍 비디오의 성장 발전과 함께 소위 코드 커팅 세대(code-cutting generation)가 목전이라 합니다. 젊은 세대가 더 이상 TV를 사지 않고 케이블 수신기 코드를 끊고, 무선 인터넷을 통해 스트리밍 서비스 회사들이 제작한 새로운 감각의 콘텐츠를 즐기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방송 환경 변화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본사는 정치 환경 변화로 또 다시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나 걱정됩니다. 이럴 때 사우회 선배들을 만나는 후배들이 선배로부터 현명한 현실관과 방송 전문적 소신을 전해 받을 수 있으며, 선배의 지혜가 좌우명으로 참고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 생각해봅니다.

사우회가 후배들의 귀감으로 존경 받는 친목회라는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MBC C&I**는  
드라마·교양·예능 프로그램 등 방송콘텐츠  
제작·유통에서부터 방송 중계·편집 등  
방송시스템 및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콘텐츠 제작, 차별화된 방송 인프라를  
통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방송문화산업의  
새 지평을 여는 핵심 주역이 되겠습니다.

**MBC C&I**

## 봄철 회장배 바둑대회 이종성(기술), 이창호(기술) 우승



2017년 춘계 바둑대회가 6월 7일 10시부터 40여명의 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사우회 사무실에서 열렸다. 바둑 동호회 박종규 회장은 "올해부터 월례 정기모임에 빠짐없이 참여하는 회원들에게는 우수상을 시상하겠다"면서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했

다. A조와 B조로 나뉘어 열린 이날 대회에서 A조(4급 이상)에서는 이종성(기술)회원이 우승을, 정태식(기술)회원이 준우승을 차지했다. B조(5급 이하)에서는 이창호(기술)회원이 우승을, 김세중(관리)회원이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날 첫 번째로 시상된 우수상은 노서을 고문과 김세중, 이한익, 정영수, 양홍렬 회원 등이 수상했다.

## 2017년 봄철 문화탐방 행사



사우회는 6월 21일(수) 강릉지역을 중심으로 '2017년 봄철 문화탐방' 행사를 가졌다. 이번 문화탐방은 '인사동 사옥에서 근무했던 사우회원들'을 대상으로 기획됐는데, 해당자 중 많은 분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을 사양해 예상보다 적은 인원만 참석했다. 사무처에서는 연로한 분들이

많은 관계로 비교적 젊은 진행요원들을 동행시켜 혹시 모를 불상사에 대비했다. 일행은 MBC강원영동 장근수 사장과 권혁황 국장의 따뜻한 환영과 안내를 받아 경포대, 선교장, 허난설헌 생가, 정동진, '바다부채길 트래킹' 등을 경험하고 13시간여의 탐방을 무사히 마쳤다.

## 2018 동계올림픽 준비 현장에서



이재훈(기술)

2015년 12월, 31년간의 직장 생활을 마감하고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직원채용공모(주파수관리)

에 합격해 조직위 정보통신국 사무실이 있는 강릉에서 제2의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동계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이곳 상황을 잠시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 해 11월부터 올 4월까지 22개의 세계선수권 및 월드컵급 국제대회를 유치해 평창 설상(보광 정선 용평 횡계) 및 강릉 빙상(강릉시내) 경기장에서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대회의 테스트 이벤트 대회를 치르면서 경기운영의 경험을 쌓았다. 여러 경기가 동시에 열리면 휴일근무는 물론, 어떤 때는 아침 6시부터 자정까지 꼬박 근무한 적도 있었는데 올림픽 업무는 '다름 아닌 체력전'이라는 것을 이때 깨달았다. 내 업무는 횡계, 보광, 정선, 용평, 강릉 경기장을 수시로 드나들며 대회 운영진이 사용하는 무선통신기기(무전기, TRS, 모바일폰, 차량wifi 등)들을 관리하는 것이다.

올림픽을 경험한 나라에서 파견된 사람들, IOC업무를 대행하는 협력회사 사람들과 같이 업무를 진행하다보니 외국어에 대한

동기유발이 되어 조직위 사람들은 뒤늦게 외국인 강사로부터 영어회화 배우기에 열심이다. 수도권에 한 영어학원이 후원을 해줘 조직위 직원이면 누구나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혜택도 누리고 있다.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대회가 열리는 평창(횡계, 보광 등)과 강릉지역에서는 경기장, 개폐회식장, 도로 개보수, 시내 환경정비, 선수촌 등 건설공사 관련 인력 및 조직위원회 인력 등이 수도권에서 내려와서 일을 하다 주말은 가족이 있는 집으로 올라가다 보니 금요일 오후 고속버스와 시외버



스표는 금방 동이 난다. 버스회사에서 임시버스를 수시로 배차하지만 그것마저 매진되는 것을 보면 수도권에서 정말 많은 인력이 내려와서 올림픽 관련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직위



는 공무원들과 공채로 뽑은 민간 부문 전문직을 합해 약 1,20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부(HQ)는 횡계에 있고, 정보통신국과 수송교통국은 강릉시내에 자리하고

있는데, HQ에 근무하는 많은 조직위직원들은 도심기반시설이 좋은 강릉에서 통근버스로 횡계까지 출,퇴근을 하고 있다.

경기장이 있는 지역은 도심화

경정리 및 기반조성 사업으로 도시 발전이 한 10년 앞당겨져서 부동산 값이 많이 올라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있는데, 올림픽이 끝나고도 계속 유지될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올 12월 서울에서 강릉까지 KTX가 운행하면 수도권의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서 지속적인 강릉 발전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빙상경기(쇼트트랙, 피겨, 아이스하키, 스피드스케이팅, 컬링)는 강릉 올림픽파크에서, 설상경기(알파인경기, 스키점프,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 루지, 스킨슬레드, 봅슬레이 등)는 횡계 알펜시아 스포츠파크, 보광 휘닉스파크, 정선 알파인센터에서 개최된다.

이제 8개월 앞으로 다가온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할 때다.

경·조사

■ 팔순 ■

이완수(대구)08/10 최호룡(편제)08/15 이태영(업무)08/26 남의균(관리)09/08  
노희복(기술)09/19 주옥연(편제)09/21 김용덕(관리)09/30

■ 고희 ■

이성은(업무)08/15 권오승(보도)08/26 김태영(전주)08/26 류승태(편제)09/17  
백하현(관리)09/25

■ 회갑 ■

송원근(관리)08/01	손목현(기술)08/02	이용우(보도)08/02
노웅래(보도)08/03	봉필호(보도)08/14	박정근(편제)08/18
김순단(관리)08/20	윤진(기술)09/02	한윤희(관리)09/02
박상준(관리)09/03	허연희(보도)09/06	서경주(편제)09/08
박한근(기술)09/09	조덕형(기술)09/11	박순호(관리)09/18
이원준(편제)09/21	이종례(편제)09/21	임무혁(관리)09/23

■ 결혼 ■

장철수(편제)딸06/10	조복현(기술)장남06/18	정옥균(기술)차녀06/18
장덕수(편제)딸06/18	이학규(편제)장녀06/24	임남규(관리)장녀08/20

■ 부음 ■

조미숙(관리) 시모상 05/23	변영우(편제) 모친상 05/25
이두표(업무) 장인상 06/21	김애경(관리) 시모상 06/26
이강용(업무) 모친상 06/29	정경석(관리)장 모상 07/07

회원 / 회비관리

■ 신규입회 ■

임진택(특별/전 감사) 010-5227-7882 강남구 압구정로 32길 51

■ 연회비 ■

5월 : 강효복('17) 백성원('17) 이오기('17) 전영수('08~'16)  
정연호('17) 최양목('12~'16)  
6월 : 김성호('17~'19, 80세 납부 끝) 김시용('16~'17, 80세 납부 끝)  
김종창('18) 민경창('17) 박원웅('15~'16) 오순심('17)  
윤재민('14~'17) 이두표('17) 임진택('17~'30, 80세 납부 끝)  
장용택('13~'16) 전정익('17)  
7월 : 홍학표('17)

번호 / 주소 변경

편제 : 김성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보라2로 48번길 3-17  
김시용 010-6233-2885  
심상수 인천시 중구 신도시남로 15  
보도 : 박래양 강동구 아리수로50길 50  
최종걸 경기도 광주시 경충대로 1422길 11-9  
기술 : 김성기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다문북길 57  
황선영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안성맞춤대로 1654  
관리 : 권선장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620  
이종숙 양천구 목동중앙로 5길 30  
맹석기 경기도 하남시 덕풍남로 11  
장두호 경기도 평택시 지산로 139번길  
대전 : 조춘희 서초구 효령로 77길 14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강현이(편제)

6월 8일 설암으로 별세했다. 향년 77세. 1963년 입사해 라디오, TV PD로 근무하다 1971년 퇴직했다. 이후 국제그룹 상무, 동서증권 전무 등을 거쳐 동서할부금융(주) 사장을 지냈다.



박원웅(편제) 6월

24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77세. 1967년 라디오 PD로 입사해 제작위원, 부국장, MBC 아카데미 상무를 역임했다. DJ와 PD로 "박원웅과 함께"등을 진행해 많은 청취자들과 친숙했다.



이병춘(관리) 7월 8

일 별세했다. 향년 80세. 1964년 입사, 총무국 부국장 등을 지내고 1981년 춘천MBC 상무이사, 1988 원주MBC 사장, 1991년 광주방송 사장을 역임했다. 사우회 감사와 부회장으로 기여했다.



함명철(보도) 7월 6

일 별세했다. 향년 75세. 1972년 춘천MBC를 거쳐 1977년 본사로 자리를 옮겨 국방부 담당기자를 오래 했다. 문화과학부장, 해설위원, 수원지국장을 지내고 2000년 12월 정년퇴직했다.



이철원(ANN) 7월 3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82세.

1958년 대전KBS를 거쳐 1964년 MBC에 입사했다. 아나운서 부장과 실장, 전주MBC 사장을 역임했다. 사우회 창립 발기위원과 부회장을 맡아 기여했다.

때 물 흐르듯 깔끔한 하나의 작품이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되돌아 볼 때 지금 내가 나인 것은 그분의 가르침에 있었음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다만 언제나 고인에게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는 사건이 있었으니, 1983년 10월 9일 버마 아웅산 묘소에서 있었던 비극적 참사의 영결식을 중계하는 날, 당시 아나운서 실장으로 취임하셔서 내게 맡기신 첫 임무를 잘하기 위해 늦게까지 준비하다가 늦잠을 자버린 일입니다. 천만 다행으로 그날 비가 내려 모든 일정이 바뀌었고 중계방송은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고인의 깔끔한 성품에 누를 끼친 이 불충을 이제는 용서해주시고 하늘나라에서 영생복락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ANN 축구대회에서  
오남렬, 임국희, 이철원 ANN

故 이철원 선생님을 그리며



임 주 완(ANN)

두를 강타 당한 듯 한동안 멍하고 텅 빈 가슴 주체할 수 없습니다. 저의 은사였고 큰 산이었던 이철원 선생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인은 각종 스포츠 중계방송을 통해 청취자의 마음

정녕 애달프고 슬프다! 그분의 모습과 카랑카랑한 음성이 이렇게 뇌리에 생생한데 부음을 접하고 보니 큰 망치로 후

을 쥐락펴락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남기신 일화가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만, 1974년 4월 아침 남아공의 더번에서 홍수환 선수가 WBA반탐급 챔피언 아놀드 테일러를 제압했을 때 "아놀드 테일러 다운입니다. 다운!"이라고 외치던 그 감격에 찬 목소리는 특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중계 캐스터에 대한 그분의 평소 가르침은 "중계는 원고나 시나리오도 없고 모든 것이 애드립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기승전결의 원칙은 있고 그 중계를 녹음해서 들어볼

동정



**유혜자(편제)** 월간지에 3년간 연재했던 글과 이후의 신작 등 하루에 볼 수 있는 문화재에 대한 53편의 수필을 묶어 '아침에 떠나는 문화재 산책'을 펴냈다. 열다섯 번째 수필집으로 외국 문화재와 명승지에 대한 글도 있다.



**전평국(보도)** 6월 21일 오후 정년퇴직 기념으로 경기대학교 블랙홀에서 음악 발표회와 기념음반도 제작했다. 가톨릭커뮤니케이션협회인 '시그니스서울' 감사로 일하고 있는 전 회원은 색스폰 연주도 수준급이다.



**추성춘(보도)** 5월 25일 대구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지방분권 실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사)생활정치아카데미 대구광역시지회가 주최한 학술세미나에서 사회를 맡았다.



**양영철(보도)** 한림대 객원교수로 '방송뉴스입문' 수업을 통해 학생들을 지도해서 제작한 30분짜리 뉴스 형식의 춘천마임축제 리포트가 CATV인 CJ강원방송에서 6월 18일 방송됐다.

동/호/회/소/식



정인영 회장

캘리그래피동호회(회장 정인영)

그리스어語로 '손으로 그린 그림문자'라는 뜻의 캘리그래피(Calligraphy)는 글자를 조형적으로 아름답게 그리는 핸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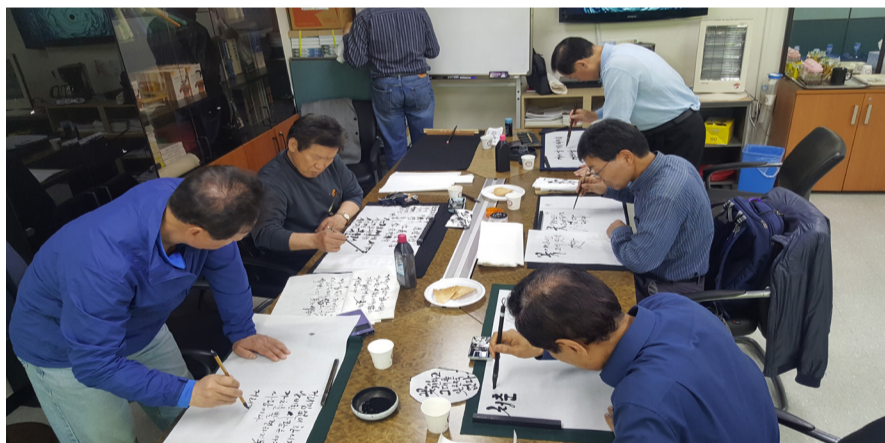
2016년 4월에 발족한 사우회 캘리그래피동호회는 현재 9명의 회원들이 매주 월요일 3시에 사우회 사무실에서 정인영 회장의 이론과 실기 지도로 솜씨를 연마하고 있다. 회원들의 실력은 아직 초보단계지만 워낙 열성적으로 공부하고 있어서 조만간 중급과정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레터링 기술을 말한다.

최근 각종 광고, 편집물, 로고 등 여러 매체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글자 자체가 하나의 이미지나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의 상징성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며 글자 배열 또는 문장 정렬에 따라 글자체에서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그림에 가까운 글자다.

정 회장은 "앞으로 1년여 더 공부해서 어느 정도 실력이 갖춰지면 회원들의 전시회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전시회도 틈틈이 가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공부를 한다는 호기심과, 회원 간의 친목도모를 통한 우의를 다지는 즐거움에 젖은 회원들의 정진을 통한 전시회가 기다려진다.



한문동호회(회장 권혁화)

6월 1일부터 기초반을 새로 개설하고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강의를 진행 중이다. 교재는 명심보감이며 현재 유길춘(편제) 양진수(ANN) 두 회원이 수강하고 있다. 관심 있는 회원께서는 사무처나 권혁화 훈장(010-3739-0889)에게 신청하면 된다.



에게 신청하면 된다.

문기회(회장 권혁화)

매달 세 번째 금요일에 열리는 문기회 모임이 최근 활성화되면서 모임 안내와 회원 소식 공유를 위해 단독방을 개설해 131명의 회원을 확보했다. 앞으로 회원들의 소식을 주고받는 '사랑방'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또한 그동안 모임 장소였던 광화문 뷔페식당이 문을 닫은 관계로 5월부터는 역삼역 근처 뷔페식당 '제우스



스타'로 장소를 바꿨다.

인사동 클럽(회장 장명호)

7월 10일 프레스센터 엠바고 룸에서 오찬 모임을 가졌다. 유경민 MBC 라디오 국장의 초대로 이뤄진 이번 모임에는 19명의 회원들이 참석, 박원웅 회원의 작고를 안타까워하는 얘기를 나누며 서로의 건강을 기원하는 훈훈한 정담 등을 나눴다.



www.hdbnt.co.kr

(주)에이치디비엔티는 방송장비의 설계 및 개발 보급하는 국산 브랜드 회사입니다

각지방사 (KBS,MBC,SBS) 지역국 및 종편/P.P사 등 다수의 방송장비를 공급함으로써 방송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을 설계/개발에 반영하여 단품하나하나에도 끊임없이 연구개발에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

UHD방송시대를 맞이하여 2016년부터 UHD관련된 개발사업에 연이어 착수했으며, 2017년 KOBIA 전시회를 통해 UHD관련된 장비를 선보였습니다.

**DPIC & MCFS**

BTS-802R

BTS-802

DPIC-401

**FULL COLOR TALLY SYSTEM**

Full Color Display

RED	BLUE	PURPLE	SKY-BLUE
PURE-GREEN	PINK	WHITE	

**취급제품 목록**

- GPS MASTER CLOCK /
- DIGITAL TIME DISPLAY
- FULL COLOR TALLY SYSTEM
- VIDEO TALLY SYSTEM
- DIGITAL FRAME
- INTERCOM SYSTEM
- LINE MONITOR
- LCD MONITOR
- TELEPHONE HYBRID
- TELEPHONE MULTI
- SWITCHER SYSTEM
- HD PANORAMA SYSTEM
- LEVEL METER
- CUE TONE GENERATOR
- AUDIO
- VIDEO
- P.D.U / 순차전원공급장치
- REDUNDANT SWITCH

.UHD Frame Modul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11 (당산동4가) 당산SK V1 Center E동 709호 TEL\_ 02)6052-0005~7 FAX\_ 02) 6052-0008

##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원치 않을 수도 있다



이 상 로(보도)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유세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막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한 미국과 한반도 주변 관련국들의 입장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중국의 속내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만, 중국인들은 자신의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무기와 관련해 조심스럽게 중국 정부의 속셈을 가늠해봤습니다.

중국은 진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한도 핵무장하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남북 양쪽이 둘 다 핵을 갖고 있으면 한반도에서 어느 일방이 무력으로 영토를 침범하려고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한반도 분단을 고착시키는 것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한국이 핵무기를 갖는다면 반대하는 척하면서 환영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한이 핵무기를 가졌으니 미군은 철수해도 된다’는 논리를 펼 것입니다.

2010년 세종연구소 김기수 연구실장은 “중국, 도대체 왜 이러나”라는 책에서 중국이 주변국을 다루는 일정한 패턴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첫째, 덩치가 커서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맞서는 척하고, 뒤로는 이이제이(以夷制夷) 정책을 구사한다(소련과 인도). 둘째, 덩치는 작으나 똑똑하고 끈질긴 국가에게는 분리·지배 정책(divide and rule)을 구사한다(한국과 베트남). 셋째, 작고 힘이 별로 없는 국가는 무자비하게 점령하는 정책을 쓴다(티베트). 넷째,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척 한다.

2017년 봄,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트럼프는 북한의 핵을 중국이 해결해주도록 압박했습니다. 미국은 환율과 무역으로 중국을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습니다. 즉 중국에 대한 경제적

협박을 통해서 북한의 핵을 제거하려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은 미국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압박카드를 시진핑에게 꺼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정보에 밝은 인사들 중에는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비밀리에 접촉을 하고 있으며, 이 접촉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첫째, 미국이 김정은 정권을 지켜 주겠다. 둘째, 평양부근에 미군을 주둔시키며, 원산항 또는 청진항을 미국에 개방한다. 셋째, 북한은 핵을 완전히 포기한다.

이것은 미국의 ‘투 코리아’ 정책, 즉 두 개의 한국을 모두 미국편으로 끌어들이어 압록강을 사이로 중국과 정면으로 대치하려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중국의 국토방위개념이 정면으로 도전을 받은 것입니다. 예상할 수 있는 중국의 선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북한을 압박하라는 미국의

제안을 무시한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중국에 대해 경제적인 보복을 할 것이고 자칫하면 미국의 경제보복이 중국 공산당정권의 존립자체를 흔들 수도 있다.

둘째, 미국이 북한에 핵시설만을 파괴하는 제한적인 무력사용을 하도록 눈감아준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다. 제한적 무력사용이 전면전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북한에 압박을 가해 핵을 포기하도록 한다. 북한은 저항할 것이며 이때 중국이 북한에 대해 사용할 카드는 ‘남한의 핵무기 개발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북한이 ICBM을 개발하려는 목적은, 남한을 기습공격하면 미군이 개입할 것이고 미군이 개입하면 ICBM으로 미국을 공격하겠다고 협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남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면 북한의 이런 전략의 실현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국방과 외교에는 정해진 원칙이 없기 때문입니다.

## 주판과 마술사들



한 귀 현(업무)

’79년 초, 신입사원 통합연수에 이어 실무연수가 끝나 갈 즈음, 나는 업무관리부로 배치될 것 같은 예감이 자꾸 들었다. 동기 중 내가 유일하게 상고商高를 나왔고, 상고商高 출신이면 숫자에 밝을 것이라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나는 문과文科였고 물론 주산珠算에도 아주 맹탕이었다.

예감대로 업무관리부로 배치되어 가보니 사수 선배님이 ‘주판을 잘 두냐’고 묻는다. ‘국민학교 때 조금 만져봤을 뿐 잘 못 둔다’고 대답하니 ‘우리 부서는 주판 못 두면 일을 할 수가 없다’면서 주산학원에 가서 빨리 배우라고 조언해줬다. 즉시 파고다 주산학원에 등록하고 벼락치기 시험 공부하듯 맹연습을 했지만 실력이란 그리 쉽사리 느는 게 아니었다.

선배가 다른 부서로 가고 월말이 다가오면서 매일 수 십장 씩 들어오는 광고로 세금계산서를 보며 ‘서툰 주산 실력으로 저걸 언제 다 계산할까’ 걱정이 들었다.

토요일 아침, ‘월말 신탁을 마감하라’는 부장님 말씀을 듣고 주판과 세금계산서 뭉치를 가방에 꾸러 뒀다. 마루에 커다란 밥상을 펴놓고 세금계산서를 10장씩 클립으로 묶어 계산하고 다시 그것들을 합산했다. 묶은 뭉치가 수십 개는 됐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런데 부가세란 원래 공급가액의 10% 숫자가 돼야 하는데 이상하게 매번 엉뚱한 숫자가 계산되어 나왔다. 도무지 원인을 알 수 없었다.

주말 내내 세금계산서와 씨름하다가 월요일 출근했다. 슬슬 눈치를 보다가 마침 한가해 보이는 미스 K에게 부탁했더니 착한 그녀가 선뜻 도와줬다. K는 계산하기 전에 먼저 세금계산서를 한 장 한 장 넘겨가며 마치 병아리 감별사가 수평아리 골라내 듯 몇 장의 세금계산서를 골라내서 빼냈다.

그런 다음 책상 고무판에 주판을 올려놓고 미끄러지지 않게 왼손으로 가볍게 잡고서, 오른손 새끼손가락 사이에 타자 지우개가 달린 연필을 끼우고 세금계산서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계산하기 시작했다. 오른손 팔꿈치를 책상에서 가볍게 띄

우고 수백 장 세금계산서의 공급액과 부가세 금액을 동시에 계산해 내는 번개같은 손가락을 보면서 마치 마술을 보는 착각에 빠져들었다.

당시 우리 부서 직원들의 주산 솜씨와 타자 솜씨는 그야말로 프로였다. 그들은 학생 때 주산 경시대회에서 상 받은 것조차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고수였으며, 주판만 손에 쥐면 가감승제加減乘除를 순식간에 계산해치우는 마술사들이었다.

그녀는 주판으로 계산하는 동안에 동료 여사와 얘기도 나누고 웃기도 하면서 삼시간에 수백 매를 계산했다. 그녀가 합계 숫자를 종이에 적어 놓고 검산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나는 7층 복도 끝으로 가서 담배에 불을 붙여 물었다.

유리창 너머로 문화체육관 올라가는 작은 언덕길이 보이고, 옛날 아라사 영사관 하얀 건물과 공터를 바라보면서 담배를 태운 뒤 사무실로 돌아와 보니 이미 검산작업이 끝났는지 K는 자리에 없었다.

한참 후 자리로 돌아온 K는 몇 장의 세금계산서를 다시 계산해 합산한 뒤 공급액, 부가세, 합계라고 적은 종이를 내밀며 “이게 이달 신탁 총액”이라고 했다. 들여다보니 공

급가액은 내 계산과 같은데 부가세와 총액은 전혀 다른 숫자가 적혀 있었다. 왜 이럴까?

“영업국의 L차장님과 P선배님은 가끔 숫자를 뒤바꿔 써놔서 골탕 먹을 때가 있어요. 공급가액이 1,589,200원이면 부가세는 158,920원이 돼야하는데 간혹 159,820으로 잘못 써놔요. 그래서 무작정 계산부터 하지 말고 한 장 한 장 그런 것을 살펴보고 골라내야 해요” “아하! 범인이 바로 여기 있었구나”

요령을 배우면서 나도 슬슬 초보 마술사의 길로 들어서고 있었다.

많은 세월이 지났다. 퇴직 사수들 모임에서 당시 세금계산서의 숫자를 뒤바꿔 놔서 복장을 뒤집어 놔던 선배도 보게 된다. 이제 연세도 들었고 소주라도 한잔 드시면 목소리를 높여 시국을 논하고, 젊은 것들 잘못을 꾸짖는 용맹한 모습의 선배가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말석에 앉아 선배님들을 보면서 그때 주판의 마술사였던 그들을 다시 한 번 떠올린다.

이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 귀여운 손주들에게 왕년의 마술 솜씨를 전수하고 있을 것만 같다.

## (히)스토리가 있는 사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보는 것만으로 공감이 되는 사진, 사진 속에 역사와 애깃거리가 담겨있는 ‘(히)스토리가 있는 사진’코너입니다. 여기 소개하는 사진들을 보시고 덮어뒀던 옛 앨범을 한번 뒤적여 보지 않으시렵니까. 그래서 찾아낸 귀한 사진들의 이야기를 공유하시면 어떨까요. 사우회원님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고 무 송(편제)



풍극본 고무송 연출“로 시작되는 <법창야화>는 70년대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각종 범죄를 예방, 명랑사회 기풍을 조성한다는 기획의도를 갖고 출발했다. <법창야화>는 제1화 <강진 갈갈이 사건>부터 전국 청취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어 모았으나 동시에 관련자들의 항의 방문이 잇따라 담당 PD는 수시로 사장실로 호출 당하는 수난을 겪어야 했다.

청취율과 위험부담은 함수관계라 했던가! 당시 라디오 연속방송극 마지막 황금시대를 구가하던 드라마 춘추전국시대에 후발後發 <법창야화>는 앞서가던 TBC(동양라디오)<광복20년>, DBS(동아방송)<특별수사본부>를 추월하여 청취율 1위를 달성했다.

담당 PD는 영예의 방송대상은 물론 2계급 특진에 해외연수 보너스까지 거머쥐는 호사를 누리기도 했다. 사진 두 장은 <법창야화> 500회 방송을 기념, 자동차를 경품으로 내건 청취자 사은퀴즈에 1톤 트럭을 가득 채우고도 남는 응모엽서가 쇄도했던 날.

작가 최 풍(작고), 연출 고무송 PD를 비롯한 제작팀과 성우 김현직(작고), 최선자, 변희봉 등 출연진, 스폰서였던 대원전기의 회장님과 사장님 등이 최세훈(작고) 아나운서실장이 진행하는 TV 아침 생방송에 초대받았던 그때 그 시절의 한 장면이다. 사람은 가고 덜렁 사진만 남았네 그려. 아아, 사랑하였으므로 행복하였네라. 그 시절 그 사람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 그 시절 그 사람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뚜-뚜-땡. 시보時報와 함께 MBC라디오는 매일 밤 9시와 아침 10시 두 차례에 걸쳐 각 20분 동안 라디오 드라마 <법창야화法窓夜話> 본방과 재방을 송출했다.

“죄는 미워도 인간은 미워하지 말라! 다큐멘터리 드라마<법창야화> 최



서 정 훈(보도)

### 헬리콥터에 얹힌 두 가지 사연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 오랜만에 기억해보는 1988년 서울 올림픽의 표어다. 내년이면 서울올림픽을 치룬지 딱 30년이 된다. 온 나라가 올림픽 준비로 바빴었고 방송 역시 사소하고 가벼운 것까지 올림픽과 관련된 것이라면 열심히 취재하고 보도했던 시절이었다. 올림픽을 상징하는 성화를 취재하면서 유난히 헬기를 많이 탔었고 헬기로 인한 해프닝과 사고도 잊지 못할 올림픽의 추억으로 남아있다.

첫 번째 사진은 그리스 올림피아 헤라 신전에서 서울올림픽 성화가 채화되던 1988년 8월 23일. 현지에서 찍은 MBC취재팀이다. 제작 프로그램을 위해 동행했던 이석형 PD와 차인태 선배, 취재팀으로 손발을 맞췄던 이문노 기자와 본인이다.

당시 성화 채화는 올림피아의 햇살이 가장 따갑고 신선하다는 현지 시각 오전 11시 16분에(서울시각 오후 6시 16분)예정돼 있었다. 뉴스데스크 시간에 맞춰 보도를 해야 하는데 현장에서 취재하던 우리 팀의 송출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당시 김종오 파리특파원이 아테네에서 헬기를 빌려 상공 촬영을 한 뒤 아테네로 되돌아가서 위성 송출하기로 했다. 상공에서는 채화 스트레이트 기사를 취재하고, 현장에 있던 나는 스케치 기사를 리포트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채화시간이 임박해 경건하고 고요한 가운데 성녀인 디다스칼루가 의식을 갖추던 그 순간, 갑자기 상공에 나타난 한 대의 헬기... “투투투투”... 엄숙하고 조용한 현장에 느닷없이 나타난 헬기의 소음은 현장 분위기를 순식간에 초토화 시켰다. 상공의 헬기에 MBC취재팀이 타고 있다는 것은 지상의 나뭇잎에 몰랐다. 현장에서는 헬기의 소음으로 채화시간이 늦춰졌고, 상공에 있는 우리 취재팀으로서는 아래에서 채화를 하지 않고 있으니 물러날 수 없고....역사적인 서울올림픽 성화 채화는 뉴스데스크 시간에 맞추기 위한 MBC취재팀의 불같은 사명감 때문에 15분이 지연되는 역사적 사건을 남기고 말았다.



성화가 제주도에 도착해 3개 코스로 봉송되는 성화로를 사전 취재하기 위해 전국을 헬기로 날아다니는 일도 숨가쁘게 진행됐다.

두 번째 사진은 전라남도 영암 봉송코스를 취재하기에 앞서 헬기 앞에서 찍은 것이다. 윤영무 기자 이문노 기자, 그리고 나와 기술사와 기장이다. 카메라 기자가 뒷좌석 가운데 앉고 나와 윤영무 기자가 좌우에 앉아 오프닝을 각자 하나씩 하는데 이문노 기자가 카메라 렌즈를 들이대며 허리를 돌리면 양쪽 취재 기자의 엉덩이가 헬기 옆문을 압박했고, 그 순간 낡은 헬기의 한 쪽 문이 상공에서 활짝 열리고 말았다. ‘으악~’ 헬기가 휘청거리며 중심을 잃어 심하게 요동쳤고 아찔한 공포를 느끼며 안전벨트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손을 뻗어 간신히 문을 닫았으나 다시 열리기를 서너 차례.... 헬기 옆문 개방으로 인해 추락에 대한 공포심이 극에 달했던 기억이 묻어있는 사진이다. 사진 찍을 때만해도 몇 분후에 그런 공포가 기다리고 있을 줄 누가 알았으랴. 서울올림픽 30년. 머리카락 휘날리며 MBC의 이름으로 현장 취재했던 흑백사진 같은 추억이다.

## 용기의 문제이지 재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은퇴한 후에 창작업에 몰두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해본 사람만이 안다. 특별한 재능은 없지만 은퇴 후 10년이 넘게 그림을 그려 다섯 번째 전시회를 여는 이금희 화백(전 MBC사장)을 만났다. 별 좋은 토요일 오후 대학로에 있는 샹터갤러리에서다.



이 기 호  
(편제, 편집위원)

-그림은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MBC를 그만둔 바로 다음날 평소 잘 아는 신부님을 찾아갔어요. 그 분은 화가로도 활동

을 해 오신 분입니다. 그 분과는 오랫동안 종교나 인문학 등을 화제로 많은 대화를 나눠왔는데, 대화를 하는 중에도 항상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그걸 보고 “부럽다, 나도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분이 ‘회사 퇴직하면 자신의 화실에 나와 그림을 그려보지 않겠냐고 권하시더군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 두자마자 그 분에게 간 겁니다. 내가 ‘정말로 찾아올 줄은 몰랐다’고 하시더군요. 거기에서 그림을 처음으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학창시절부터 그리신 게 아니군요?

전혀 아닙니다.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전시회에 와서 하는 말도 ‘제가 미술에 소질을 보인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 붓과 오일도 회사를 그만두고 처음 만져봤습니다.

-본사 사장으로 계실 때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구입하는 등 그림에 대한 안목이 남다른 걸로 압니다. 미술에 대한 관심은 언제부터 갖고 계셨나요?

대구MBC 사장으로 재직할 때인데, 사옥 안에 갤러리(갤러리M)가 있었어요. 점심식사 후에 이 곳에 들러 큐레이터와 거의 매일 한 시간 가량 얘기를 나눴습니다. 많이 배웠죠. 근데, 대부분의 PD들은 좋은 작품을 볼 때 ‘그림 좋다’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영화를 볼 때도 기가 막힌 장면을 보면 ‘야, 저 그림 어떻게 찍었지?’ ‘카메라는 어디에 있지?’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걸 보면 PD로 일하면서 알게 모르게 미술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해보니 좀 더 일찍 그림에 대한 공부를 했었다면 색채와 구도, 형상 등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했을 것이고, 더 좋은 영상을 만들었을 텐데...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하나의 좋은 영상이 어떤 내레이션 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잖아요?

-첫 번째 전시회에서 선보인 작품들은 주로 추상계열의 작품들이었는데 이번 전시는 구상작품 위주로 이뤄졌더군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제 화업의 스승인 그 신부님이 추상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추상으로 시작했고 2008년 전시회를 할 때까지는 추상 위주로 작품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끔 구상을 해보면 굉장히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구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상을 하다 추상으로 옮겨가는데 저는 그 반대죠. 추상을 하다가 구상으로 바꾼 분들은 제가 알기로 흔치 않습니다.

-이번 전시 작품들은 풍경화가 대부분이네요?

제가 그 동안 그려놓은 작품이 100점이 훨씬 넘는데 이번 전시에는 30점만 내놨습니다. 전시할 작품 선정은 갤러리의 큐레이터가 와서 했는데 풍경이 대부분이고 정물이 2점입니다. 사이즈가 큰 작품도 있었는데 20호 위주로 선정을 하더라고요. 이번 전시는 초대전이어서 기획부터 마무리 세금처리까지 모든 걸 샹터화랑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구상화를 하면서 재미를 느끼셨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재미입니까?

최근에는 바다를 많이 그렸어요. 바다에는 파도가 있지요. 파도가 부서지는 포말이 흰색인데 아무리 그려도 파도 같지가 않아요. 부서지는 파도의 느낌이 없었어요. 여러 번 실패하고 어느 날, ‘파도에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포말이 물인데 그림자가 있어야 생생하게 표현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포말은 당연히 희게 표현하는 것으로만 알았는데 그 파도에 그림자가 있고 위치에 따라 색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런 것을 발견했을 때 정말 기쁩니다. 저는 캔버스를 마주하고 앉으면 끊임 없이 대화를 합니다. 빨간색으로 말을 건넌데 캔버스가 거부하는 표정

을 짓고, 그러면 또 색을 바꿔 보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혼자 노는 겁니다. 혼자 놀기에는 그림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화실에 나오면 하루 종일 그림니다. 그것을 즐기는 거죠.

-외국 여행 중에 그린 것 같은 작품이 있는데 화구를 갖고 다니십니까?

스케치북을 가지고 다닐 때도 있지만, 주로 휴대폰을 써요. 좋은 걸 봤을 때, 색채, 구도, 빛을 보고 찍어놔요. 필요할 때 그 사진을 보고 작업하죠.

-이번 전시회 타이틀을 괴테의 시에서 차용해서 ‘그리움을 아는 자만이’(None but the lonely heart)라고 붙였는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제가 그림을 시작할 때 어떤 분이 “사람이 그림을 그린다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을 해봤느냐?” 이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너무 막연한 질문이라 ‘무슨 말씀이냐’고 되물었

어요. 그랬더니 그분의 말씀이 “손으로 그리면 ‘그림’이라고 하고, 마음속으로 그리면 ‘그리움’인데 어원이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10년 넘게 그림을 그리다보니 혼자 작업실에 있으면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그려야 할지 두렵고 고통스러울 때도 많아요. 그럴 때 간절한 그리움으로 붓을 들면 그런 고민들이 금세 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림을 그리는 행위 자체가 위안이 된다는 뜻이겠죠.

-화가들은 자신의 롤 모델을 한 분쯤 두기 마련인데 어떤 화가를 롤 모델로 삼고 있나요?

아리카(Arigdor Arikha, 1929-2010)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인데 파리에서 활동하다 몇 년 전 돌아가셨지요. 나치시절 10대의 어린 나이에 유대인 수용소에 있다가 살아



난 사람입니다. 이분이 추상에서 구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저런 게 그림의 소재가 되나” 할 정도로 일상적이고 사소한 사물들을 소재로 그림을 그리는데 참 좋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작품 이미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MBC에 재직했던 분들 가운데 예술적 재능을 가진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 그림을 하고 싶어도 선뜻 접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 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친구나 후배들이 제게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나 정도 그리는 것은 용기의 문제이지 재능의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합니다. 시작이 중요해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한다는 것은 과욕이지요. 예술에 완벽이 있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혼자 하는 것보다는 선생님한테 지도를 받는 것을 권합니다. 혼자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열심히 해도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죠. 경험을 쌓은 분들한테 배워야 합니다. 표현기법은 혼자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남의 그림을 많이 봐야 합니다. 전시회를 열심히 찾아가 자극을 받고 배워야지요. 그림을 그리는 행위는 골방에서 영감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창조적 모방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저도 엇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12년이 되었습니다.

(후기) 이금희 화백이 롤 모델로 삼고 있는 아리카의 작품은 Contemporary Realism으로 분류된다. 이금희 화백의 화풍도 그렇게 분류되지 않을까?



이금희 화백

## 꿈같은 독도 기행



이승문(편제)

나는 화가다. 그러나 오랫동안 나만의 그림을 그려보지 못했다. 미술부에서 오로지 PD가 원하는 그림만 30년 넘게 그렸기 때문이다. 1980년 MBC가 컬러방송을 시작하면서 한국화 ID가 등장했고, 그 그림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스케치 하면서 다녔지만 독도는 가지 못했다.

사진에서 본 구멍 뚫린 독도바위는 너무 신기하게 보였고 언젠가는 꼭 그곳에 가서 삼형제굴 바위와 대화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싶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계획을 짜서 몇 번을 시도했지만 독도에 올라가는 일은 번번이 실패했다.

다섯 번은 울릉도에서, 세 번은 바다 멀리서만 독도를 보고 왔다. 한번 마음먹은 일은 해치워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올 봄부터 나는 동해의 날씨와 바

람, 파도물결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한 결과 독도 상륙을 위해서는 4월과 9월이 적당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4월의 어느 날 오후.

일기예보에서 '다음 주부터는 날씨가 좋다'고 했다. '기회는 이때다' 싶어 흥익여행사에 예약을 했다. 이미 마음은 독도 삼형제굴 바위에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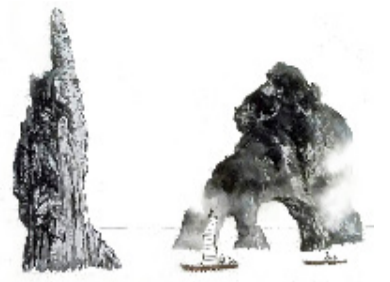
드디어 4월 26일. 새벽 2시 30분에 기상하여 니콘카메라, 300m망원렌즈, 스마트폰, 충전기 등 준비물을 챙겼다. 간단한 빵과 커피로 요기를 하고 영등포 신세계 백화점으로 갔다. 새벽이라 그런지 공기는 차가웠고 거리엔 나 혼자였다. 새벽 4시, 40명을 태운 버스는 묵호항을 향해 달렸다. 3시간 만에 묵호여객선터미널에 도착하여 아침식사를 하고, 9시에 울릉도, 독도로 가는 씨스타 유람선을 탔다.

얼마나 가보고 싶던 독도인가. 기껏 날씨가 좋다가도 막상 접안(接岸)하려고 하면 파도가 쳐서 허탈하게 돌아와야 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나는 묵주를 꺼내 열심히 주님께

'제발 이번에는 독도에 내려 삼형제굴 바위와 소리 없는 대화도 하고 카메라에 그들의 사진을 담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독도에 가까이 갈수록 파도는 사나워지다가 조용해지기를 반복했다. 오전에 간 배는 독도에 내리지 못하고 돌아갔다고 해서 은근히 걱정이 됐다. 배가 드디어 독도 가까이 접근하기 시작할 때 스피커 소리가 들렸다. '상륙합니다. 시간은 20분입니다, 빨리 보시고 배에 타세요'. 아, 얼마나 반가운 소리인가.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 카메라와 배낭은 어깨에 메고 있었기에 잽싸게 선착장으로 올라갔다. 나는 정신없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그리고 '독도야 반가워. 잘 있었니?'라고 삼형제굴 바위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대화를 했다. 독도에 머문 시간은 겨우 20분. 시간 관계상 정상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기분은 하늘을 나는 갈매기가 부럽지 않았다. 30년간 품었던 한을 비로소 풀었고, 지금까지



이승문 화백 그림(독도)

어렵게 살아오면서도 나 자신을 믿고 꿈과 용기를 잃지 않았던 자신이 더없이 자랑스러웠다. 다시 배에 올라 돌아보니 독도가 입을 크게 벌리고 나를 향해 반갑게 웃고 있었다.

나는 2013년 인사동에서 개인전을 할 때 독도 그림을 두 점 발표했는데, 이번에 가서 스케치한 작품은 현재 20%정도 그리고 있다. 빨리 완성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다.



www.thesaehan.com

[ 54년의 역사와 신뢰를 바탕으로 희망나무의 미래를 디자인합니다 ]

새한

### 맛과 멋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기업



새한건설(주)  
대표이사

이근재

(사)한국JC특우회  
제 31대 중앙회장



새한건설

가족회사 / (주)새한, 보승토건, 보승파워텍, 한승개발, 신새한

암 · 재활 · 통증 · 사고후유 치료

어의당 한방병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1길 22 통영암치료 상담문의 063 900 5555

저희 어의당 한방병원은 최고의 한/양방 의료진과 함께 진심을 다한 서비스로 귀하의 건강한 생활을 약속드립니다

암세포 성장억제 고주파 온열 치료  
비수술/ 비약물적 재활 치료  
방사선/ 항암 후유증 치료  
비수술적 척추 관절질환 통증 치료

한방1과  
한원주 대표원장한방2과  
이길송 원장한방3과  
이리라 원장양방과  
임은영 원장